박우량 군수, '1004섬을 상상한다' 열강

지역 내 초·중·고 교장 대상 협의회서 미래비전 제시 특강 "멋과 맛 살려 명품 섬 만들 것"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역 초·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우량 군수는 최근 신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1004섬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초·중·고학교장 협의회에 참석해 '1004섬을 상상한다'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박 군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쉼 없이 재촉해왔다"며 "'꿈'을 섬에 입히는 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바람, 햇볕, 바닷물이 소득이 돼 희망이 샘솟고 섬에서 태어나 당당하며 신안군에서 사는 일은 자랑거리다"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은 신안군이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우려와 불신을 씻어내고 성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반월·박지도의 '퍼플섬'과 기점, 소악도의 '12사도 순례길'은 사람들로 넘쳐나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연 그대로의 멋과 맛을 살려 명품 섬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위의 꽃 정원' 사업과 섬, 섬 마다 색을 입히는 컬러마케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찾아 온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한 버스완전공영제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의 지평을 열었다고 박 군수는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90여곳의 기관과 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박 군수는 "신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젊은이들이 넘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미래의 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안군의 교육 관련 예산은 인근 목포시와 무안군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난 2018년~2022년 235억원을 투입해 목포 152억원, 무안군 179억원보다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 수 1인당 교육 투자 비용도 236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에는 62억원을 쏟아 붓는 등 통 크게 투자했다.

2년 전 하의도에 문을 연 인동초체육관 건립 공사는 총 49억1,500만원 중 신안군 29억3,000여만원, 전남도교육청이 19억8,000여만원을 들여 완공했다.

신안군은 건물 신축공사 대응투자 16억원 외 체육관 부지를 확충하면서 발생한 암반 제거 공사에 군비 13억3,000만원을 들였다. 당시 박 군수가 직접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설득해 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지역 내 각급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신안군 제공

박 군수는 '신안군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매년 초중학생 어학연수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큰 꿈을 키우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다.

박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신장시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멈춘 어학연수를 오는 7월부터 재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교육복지시책도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외국어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데도 목표를 정했다.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EBS 교재비 지원, 명문대 재학생 초청강의비 등도 적극 지원중이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신안군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도 대폭 늘렸다.

토요일마다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단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는 신안1004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올해 국회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신안교육지원청과 협의 해 지역 내 휴교 중인 학교를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 방향도 제시했다.

안좌 자라분교를 비롯 6곳의 학교를 리모델링 해 주민들의 복지 공간과 문화, 예술 관광 기반시설,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해 지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완도 추경예산 7,088억원 확정 소안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추진

완도군은 최근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7,08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본예산 6,407억 원보다 681억 원(10.6%)이 증액된 7,0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98억 원(9.6%)이 증액된 6,835억 원, 특별회계는 83억 원(48.8%)이 증액된 252억 원이다.

주요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가뭄 대책비 67억 원, 소안 생활체육공원 조성 12억 원, 보길 중통 방조제 보수·보강 11억 원, 고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 부지 매입 8억 원, 수산 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6억 원, 신재생 태양광 스마트 방범 설치 5억 원, 마을 방범 CCTV 설치 사업 4억 원, 군청 주변 주차장 조성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수산 분야 전기요금 지원에 29억 원, 노인 일자리 활동 지원 14억 원,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4억 2,000만 원, 여객선 운임 지원 3억 원,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4억 2,000만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무안형 워커블 시티 조성 김산 군수, 실천계획 수립

김산 무안군수가 '걷고 싶은 도시-무안형 워커블 시티' 조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김산 군수는 최근 읍면 순회 군정 보고회를 통해 일상생활 곳곳 산책로·공원과 쉼터 조성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워커블 시티 무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실단과소, 읍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워커블 시티 무안 프로젝트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 전략 총 28개의 실천 과제를 발굴했다.

무안형 워커블 시티는 지역 특화 친환경 산책로, 자연경관형 산책로, 일상생활 속 군민 접근성을 높인 산책로 조성과 범군민 보행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발굴된 주요 실천계획은 ▲읍면별 특색있는 산책로 조성 ▲회산백련지 야간 경관 연출화 사업 ▲위생 해충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워커블 시티 무안, 안전 무안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캠프 산책로 걷기 프로그램 운영 ▲초록 걸음 쓰담 달리기(플로깅,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 추진 ▲주민 걷기 지도자 양성 ▲일거양득 자연치유 걷기 동아리 등 28개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고구마 '소담미' 285톤 대형마트 출하

영암군이 최근 서영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육성 고구마 우수품종 '소담미' 대형마트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하하는 '소담미'는 2022년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연계해 생산된 고구마로, 시범단지 15ha에서 생산된 고구마 285톤을 소포장 또는 도매로 홈플러스를 비롯한 서원유통,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다.

소담미는 농촌진흥청이 2020년 육성한 품종으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외래품종에 비해 외관이 매끈해 상품성이 우수하고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수확 후 저장성 또한 우수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징을 지녔다.

영암군이 최근 서영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고구마 우수품종 '소담미' 대형마트 출하식을 가졌다. /영암군 제공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고구마 재배면적의 85% 이상을 외래품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오늘 출하식을 통해 국내 육성 고구마품종 확대재배로 우리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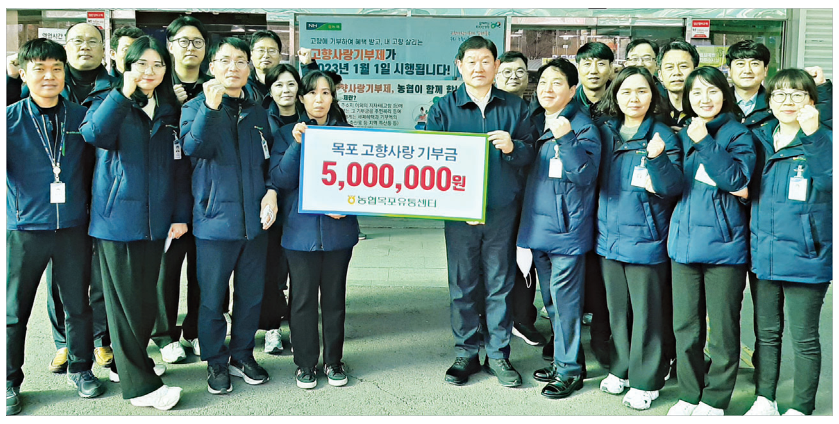
강진군체육회, 취약계층 쌀 1,200포 기부

강진군체육회가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3,100만 원 상당의 쌀(10kg) 1,200포를 강진군에 기부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된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강진군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진군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민을 위한 관심과 후원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 없이 함께하는 강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농협 목포유통센터, 목포에 고향기부금

농협 목포유통센터(지사장 정석영)가 최근 목포유통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날 이들은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기금은 목포시에 거주하지 않는 유통센터 임직원 26명 등이 목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정석영 지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목포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나주전문건설협, 인재 육성기금 기탁

나주시전문건설협의회(회장 류수길)가 최근 인재육성기금 3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에도 인재육성기금 200만원을 재단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류수길 회장은 "나주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해준 류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재단의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